

아사드의 “사회주의자” 벗들

미국 “반전” 그룹들의 부끄러운 성명에 대한 논평

미하엘 프리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1년 4월 26일,
www.thecommunists.net

얼마 전 시리아 혁명 10주년 기념일에 아사드 학살정권에 대항하는 민중봉기 활동가들과 각국의 지지자들 300여명이 중요한 성명을 발표했다. “역정보를 통한 인민 지워버리기: 시리아와 바보들의 “반제국주의”라는 제목의 이 성명은 반동 아사드 정권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봉기 민중을 “미 제국주의의 대리인”이라고 비방하는 자칭 “좌익” 세력들을 규탄하는 성명이었다.[1]

시리아 혁명 그 첫날부터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이 혁명의 열렬 지지자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 성명의 메시지를 십분 공유하는 입장이다.[2] 따라서 우리도 이 성명의 초동 서명자에 속했고 우리 웹사이트에도 성명을 게재했다.[3]

그런데 이 성명에 대응하여 미국의 개량주의적 평화주의자, 스탈린주의자, 사이비 트로츠키 주의자들이 일종의 역 성명을 냈다.[4] 이 대응성명에서 그들은 예의 거짓말을 되뇌고 있다. 아사드의 “사회주의자” 벗들이 퍼뜨리고 있는 허위 역정보 말이다. 그들은 우리의 성명이 “시리아 정권교체를 노리는 미국과 그 동맹들의 목표를 지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시리아인들의 투쟁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폭정에 대한 인민대중의 증오에 의해 추동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권교체” 기획에 의해 추동된 것이라는 암시를 던지고 있다. 투쟁의 동력이 기본적으로 민중의 독재 타도 열망이 아니라 외세의 사주 음모라는 것이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바레인, 이라크, 레바논에서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아랍 세계 전체적으로 수백, 수천 만 명이 2011년 이후 자본가독재에 맞서 영웅적으로 떨쳐 일어선 것을 이 자칭 “사회주의자들”은 간단히 무시한다.

수십만 명이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순교자로 생명을 바쳤고 수백만 명이 투옥됐다. 직업적 음모론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자들만이 이 투쟁이 정당한 민중항쟁임을 부정할 수 있고, 외부 제국주의 세력들의 “정권 교체” 공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아사드가 자국민을 학살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외부의 침략에 맞서 시리아의 주권을 수호할 권리”로 이들이 규정하는 것도 이들 논리의 연장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 대응성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리아 상황을 미 제국주의와 아사드 정권 간의 전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아사드 군대에 대해서보다 ISIS(“이슬람국가”) 테러 세력에 대해 실행한 군사 공격이 수십 배나 더 많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대응성명은 미국의 시리아 개입을 비난하고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면서도 (이것은 물론 옳다), 푸틴 러시아 제국주의의 군사 개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단 한 마디도 러시아의 개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고의적인 무지의 놀라운 예다. 잘 알려진 대로, 러시아는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시리아의 마을과 병원을 공군 폭격하고 있고, 시리아 내 여러 군사기지를 두고 있다. (타르투스 해군기지, 흐메임 공군 기지, 티야스 공군 기지, 샤이라트 공군 기지 등). 그리고 수천 명의 정규군을 투입하고 악명 높은 민간군사기업 PMC 바그네르 그룹을 고용하고 있다. 러시아 제국주의의 대규모 군사 개입이 없었다면 이미 아사드 정권은 수년 전에 카다피와 운명을 같이 했을 것이라는 것을 관찰자들 누구나 좋든 싫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주의자, 스탈린주의자,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 등 다종다양한 자칭 “사회주의자들”이 러시아 (및 중국) 제국주의와 백정 아사드의 열성 지지자들이라서 푸틴의 대대적인 군사 개입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정치에서는 암호해독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진실이다. 이 일반 진실은 혼란스런 소부르주아들의 뒤죽박죽 텍스트를 읽어야 할 때 특히 진실이다. 그들의 개념 범주들에 담긴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 사람들이 “반전 Anti-War” 깃발을 들 때, 그 반전의 의미는 단지 미국의 전쟁에 대한 반대며 동시에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지지다. 그리고 아사드 같은 푸틴·시진핑의 대리인에 대한 지지다.[5]

이것은 우리가 최근에 다루었던 다른 두 성명과 매우 유사하다. 이들 성명에서 각종 “진보” 정당들과 지식인들은 미 제국주의의 군사주의와 냉전 레토릭을 (옳게도) 비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동 정책에 대한 비판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6]

이 성명들 중 하나의 서명자들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아사드 애정 선언 서명자들과 대부분 동일인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우리는 같은 단체들의 소부르주아 평화주의자들과 스탈린주의자들을 마주친다. (United National Antiwar Coalition, Syria Solidarity Movement, U.S. Peace Council, Hands off Syria Coalition, the Workers World Party [이른바 “International Action Center”를 운영하는], the Freedom Road Socialist Organization 등).[7]

그리고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인사들이 또 있다. “제4 인터내셔널” (파블로와 만델 전통의) 내 이른바 “좌익 반대파”의 주도적 세력인 제프 맥클러의 Socialist Action도 여기서 다시 보게 된다. PTS/FT, 알타미라의 PO 파편 조직들, 피터 타페의 CWI, 앨런 우즈의 IMT, ISA, 클리프 파 SWP/IST 등과 같은 그 밖의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도 여러 해 전에 시리아 혁명에 대한 지지를 포기했다. 그들은 이 민중해방투쟁의 소부르주아 이슬람주의·민족주의 지도부를 구실로 이 투쟁을 “반동적 내전”이라고 비방한다.[8]

이것은 입으로 “트로츠키주의”를 견지하고 말로 “정통 트로츠키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RCIT가 거듭 강조했듯이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전투 강령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세계정세와 계급투쟁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해당 조직의 태도·입장을 잣대로 해서 그 계급적 성격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제는 너무도 자주 드러나는 일이지만, 입으로만 "정통 트로츠키주의"를 견지하는 것은 부르주아지 한 분파와 제국주의 강대국 한 진영에 대한 직간접적 지지를 가리는 엄폐물에 불과하다![9]

요컨대, 이 역 성명은 각종 개량주의자, 스탈린주의자,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정치적 본질을 드러낸다.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또는 "트로츠키주의"를 표방하며 러시아와 중국 같은 제국주의 열강의 시종으로, 아사드와 카다피 같은 반동 독재자들의 치어리더로 부역하고 있는 본질 말이다. 시리아 인민의 도살자 아사드의 "사회주의" 벗들의 부끄러운 성명은 이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17세기 후반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 니콜라 부알로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바보는 항상 그를 존경할 더 큰 바보를 찾는다." 아사드가 그런 바보를 꽤 많이 찾은 것 같다!

[1] 성명은 다음 Al-Jumhuriya 웹사이트와 New Politics 웹사이트에 동시에 게재되어 있다

<https://www.aljumhuriya.net/en/content/erasing-people-through-disinformation-syria-and-%E2%80%9Canti-imperialism%E2%80%9D-fools>,
<https://newpol.org/erasing-people-through-disinformation-syria-and-the-anti-imperialism-of-fools/>

[2] RCIT가 낸 시리아 혁명에 관한 여러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the-syrian-revolution/>.

[3]<https://www.thecommunists.net/forum/erasing-people-through-disinformation-syria-and-the-anti-imperialism-of-fools/>

[4] Sign-on Statement on Syria,
<https://unac.notowar.net/statement-of-solidarity-with-the-syrian-people/>

[5] 강대국 패권쟁투를 상세히 다룬 RCIT의 다음 책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Januar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또 같은 저자의 다음 최근 팸플릿도 보라. “A Really Good Quarrel”. US-China Alaska Meeting: The Inter-Imperialist Cold War Continues, 23 March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s-china-alaska-meeting-shows-continuation-of-inter-imperialist-cold-war/>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us-china-cold-war-continues-after-alaska-meeting/>; 세계무역전쟁에 관한 RCIT의 다음 문서들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우리의 분석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이외에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hinese Imperialism and the World Economy, an essay in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in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https://doi.org/10.1007/978-3-319-91206-6_179-1; 또 같은 저자의 다음 글들도 보라.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Unable to See the Wood for the Trees (PTS/FT and China). Eclectic empiricism and the failure of the PTS/FT to recognize the imperialist character of China, 13 August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 The China Question and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December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eply-to-csr-pco-on-china/>

[6] Michael Pröbsting: One-sided and Naïve ... at Best! A joint call by the friends of Chinese imperialism and the daydreamers of well-meaning global capitalism, 31 March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joint-call-by-friends-of-chinese-imperialism-and-the-daydreamers/> [중국 제국주의의 벗들은 어떻게 ‘착한 글로벌 자본주의’를 꿈꾸고 있는가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one-sided-and-naive-call-by-pacifists-and-chinese-social-imperialists/>]; Stalinist and “Trotskyist” Supporters of Chinese Imperialism under the Fig-Leaf of “Anti-Imperialism”. A commentary on the statement “No to U.S. war threats

against China!” by the “United National Antiwar Coalition” in the U.S., 4 April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stalinist-and-trotskyist-supporters-of-chinese-imperialism-under-the-fig-leaf-of-anti-imperialism/>.

[7] 각종 스탈린주의 당들의 친 아사드 논리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Stalinism: Assad’s Best Friends Forever. A commentary on a joint international initiative of Stalinist parties, 3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stalinism-is-assad-s-best-friends-forever/>

[8] 우리는 이 같은 비방 중상을 다음 문서들에서 다룬 바 있다. Michael Pröbsting: Syria and Great Power Rivalry: The Failure of the "Left". The bleeding Syrian Revolution and the recent Escalation of Inter-Imperialist Rivalry between the US and Russia - A Marxist Critique of Social Democracy, Stalinism and Centrism, 21 April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great-power-rivalry-and-the-failure-of-the-left/>; Is the Syrian Revolution at its End? Is Third Camp Abstentionism Justified? An essay on the organs of popular power in the liberated area of Syria, on the character of the different sectors of the Syrian rebels, and on the failure of those leftists who deserted the Syrian Revolution, 5 April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n-revolution-not-dead/>.

[9] 각종 “트로츠키주의” 조직들의 타락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Workers Power (RCIT의 전임 조직): The Death Agony of the Fourth International and the Tasks of Trotskyists Today (1983); 이 책은 온라인에서 무료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death-agony-of-the-fourth-international-1983/>; Michael Pröbsting: Healy’s Pupils Fail to Break with their Master. The revolutionary tradi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and the centrist tradition of its Epigones Gerry Healy an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healy-and-fourth-international/> 각종 소위 트로츠키주의 조직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위에서 언급한 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와 다음 책에 있다.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Chapter 13 RCIT Books, Vienna 2013; 이 책도 온라인에서 무료로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